경구개 변이음의 발생과 파찰음화*

박 종희

— 차례 —

〈벼리〉

음소적 ㄷ-구개음화는 /t/의 이음적 구개 변이음 [tʲ]이 발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t/가 [tʲ]로 이음적으로 구개음화한 다음, 경구개 치경 파열음 [tʲ]가 조음상의 무표성 때문에 또는 구개음화의 인지적 단서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파찰음화한 결과 [ʧ]가 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파열 후 소음 구간의 길이를 길게 하면 주요한 음향학적 단서가 되어 인지도가 커진다. 산발적인 파찰음화를 경험하다가, 하향 이중모음 '의'가 '이'로 단모음화한 이후에는 이 파찰음화의 빈도가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ㅈ'/ts/의 경구개 변이음 [ʧ]와 음성적인 충돌 또는 중첩이 빈번하게 된다. 이때 산포 원리가 작용하면 'ㅈ'/ts/의 경구개 변이음 [ʧ]가 [ʨ]로 변하게 되어, 'ㅈ'의 으뜸 변이음이 [ts]에서 [ʧ]로 바뀌어진다. 결과적으로 조음 위치가 위로 올라가 'ㅈ'/ts/가 'ㅈ'/ʧ/로 재구조화되어 음소적 ㄷ-구개음화가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해석은 [ʧja]의 [j]가 탈락하면서, [tsa]와 [ʧa]의 구별이 모호하게 된 데에서 /ʧ/의 발생 원인을 찾는 이전의 설명 방법과도 다르다.

주제어: 경구개 변이음, 파찰음화, 음소적 구개음화의 발생, 인지적 대립.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1. 들머리

국어의 ㄷ-구개음화는 중세국어의 치음 ‘ㅈ’(/ts/)의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허 웅(1964)에서는 ‘ㄷ’(/t/)이 ‘ㅈ’(/ts/)으로 바뀐 후에 치경음 ‘ㅈ’(/ts/)이 경구개 치경음 ‘ㅈ’(/ʧ/)으로 재구조화한 결과, ㄷ-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기문(1972)에서는 치경음 ‘ㅈ’(/ts/)이 경구개 치경음 ‘ㅈ’(/ʧ/)으로 재구조화한 이후에 ㄷ-구개음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들 두 견해는 모두 음소 층위의 체계적인 관점과 중세국어 당시 ‘ㅈ’의 음가가 치경음 /ts/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곽 충구(2001)에서는 현재 ㄷ-구개음화가 진행 중인 함북 방언을 조사하여 치경음 ‘ㅈ’(/ts/)이 경구개 치경음 ‘ㅈ’(/ʧ/)으로 재구조화되기 이전, 즉 자음 체계상 아직 경구개 치경음 /ㅈ/(/ʧ/)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다시 말해 [ts]와 [ʧ]가 변이음을 이루는 단계에서 ㄷ-구개음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훈춘 지역어를 조사한 소 신애(2003)에서도 제시되었다. [ʧ]이 /ㅈ/(/ts/)의 경구개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단계에서 ‘ㄷ’(/t/)이 ‘ㅈ’([ʧ])으로 구개음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실증적인 예로 제시된 것이다. 또 정 인호(2003)에서는 /i, j/에 선행하는 ‘ㅈ’과 ‘ㄷ’, ‘ㄱ’의 변이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ㄷ>ㅈ’, ‘ㄱ>ㅈ’의 음운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구개음화는 변이음의 음성적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한 결과, 이때 화자들이 음소를 설면음 ‘ㅈ’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로 설명한다.

체계적인 면을 강조한 허 웅(1964), 이 기문(1972)은 음소적 단계 즉 음운 체계상의 변화와 관련시켜 ㄷ-구개음화를 기술한 결과, 음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음 변화를 도외시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음운 체계상의 변화가 음 변화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입장과는 달리, 음성 층위의 단계를 중시한 곽 충구(2001)에서는 음소 /ㄷ/(/t/)이 직접 다른 음소 즉, /ㅈ/의 변이음 [ʧ]로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음소와 변이음의 전통적인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화주 /i, j/는 파열음을 파찰음으로 바꿀 어떤 요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찰음화의 이유도 적절히 밝혀져야 한다. 더욱이 중세국어 시기에도 /i(j)/ 앞에서 'ㅈ'(/ts/)이 구개 변이음 [ʧ]로 실현되고 있었음을 강 신항(1983), 김 주필(1985)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현대의 함경 방언처럼 ㄷ-구개음화가 생산적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이음의 유사성에 의한 혼란 때문에 화자들이 음소를 'ㅈ'으로 재해석한 결과 구개음화가 발생했다는 설명에서도 'ㄷ', 'ㄱ'의 변이음과 'ㅈ'의 변이음이 보이는 유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지 이들이 설면 경구개 변이음이어서 유사한 것이라면 'ㄴ, ㄹ, ㅅ, ㅎ'의 변이음도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음의 변별적 대립에 음성 층위의 단위들도 기여한다는 기능적 입장에서, ㄷ>ㅈ 구개음화의 발달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음소 /t/가 직접 [ʧ]로 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t/ 및 /ts/를 포함한 모든 설정음들이 이음적 구개음화를 1차적으로 경험하여 /t/가 [tʲ]로 이음적으로 구개음화한 다음, 경구개치경 파열음 [tʲ]가 조음의 무표성 때문에 또는 구개음화의 인지

적 단서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파찰음화한 결과 [ʧ]가 된 것으로 본다. 산발적인 파찰음화를 경험하다가, 하향 이중모음 ‘의’가 ‘이’로 단모음화한 이후에는 이 파찰음화의 빈도가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ㅈ’/ts/의 경구개 변이음 [ʧ]와 음성상의 충돌 또는 중첩이 빈번하게 된다. 이때 산포 원리가 작용하여 ‘ㅈ’/ts/의 경구개 변이음 [ʧ]가 [ʨ]로 변하게 되면, ‘ㅈ’의 주변이음이 [ts]에서 [ʧ]로 바뀌어진다. 결과적으로 조음 위치가 위로 올라가 ‘ㅈ’/ts/가 ‘ㅈ’/ʧ/로 재구조화한다. 17·18세기로 추정되는 이 단계에서 음소적인 ㄷ-구개음화가 생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음운론적인 변화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이음적 구개음화와 경구개 변이음([t^j], [ʧ])의 발생

2.1. 이음적 음운 과정

이음적 음운 과정(allophonic process)은 일반적으로 예외를 이루지 않고, 항상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음성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어의 설정음(coronal) 가운데에서 /s, n, l/만이 /i, j/ 앞에서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고 /t(t^h)/, /ts(ts^h)/, /ʧ($ʧ^h$)/는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이들은 모두 설정음이라는 자연 부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중에서 /t(t^h)/, /ts(ts^h)/, /ʧ($ʧ^h$)/만이 예외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t(t^h)/, /ts(ts^h)/, /ʧ($ʧ^h$)/를 포함한 모든 설정음들이 이음적으로 구개음화를 이루고, 이 이음적 구개음화에 대해서 이들이 자연 부류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가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면 구개 변이음 [t^j]가 되고, /ts/ 및 /ʧ/가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면 각각 [ts^j(ʧ)], [ʨ]가 될 것이다.

현재 구개음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훈춘 지역어에서도 구개 변이음 [t^j]가 나타난다(소 신애 2003). 한 예를 보면, ‘댱시꾼(商人)’의 ‘댱’이 제보자에 따라서 [t^jaŋ], [tsaŋ], [ʧaŋ], [taŋ]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구개화음 [t^j]([d^j])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ti], [t^ji], [ʧi]와 같은 음성 실현에서 [t^ji]를 쉽게 간취할 수는 없지만, ‘미닫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midadi]와 구개음화가 일어난 [midaʤi] 외에 이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midad^j i$]가 분명히 청취상 구별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설정음 /t/가 구개음화 환경에서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1] 그러나 국어의 구개음화에 대한 전통적인 관찰 내용은 이와 다르다(Hong 2000 참조).

(1) 국어 설정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ㄱ. [ʧ($ʧ^h$)]로의 음소적 구개음화는 접사 경계의 /t(t^h)/에서 발생한다.
ㄴ. 접사 경계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음소적 구개음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ㄷ. 이음적 구개음화는 모든 설정음에서 발생할 수 있다.
ㄹ. /t(t^h)/ 및 /ʧ($ʧ^h$)/에서는, 이음적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1)ㄱ 및 (1)ㄴ으로부터, 음소적 구개음화는 접사 경계의 치경음 /t(t^h)/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1)ㄷ 및 (1)ㄹ로부터, 이음적 구개음화는 /t(t^h)/ 및 /ʧ($ʧ^h$)/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1) t 구개음화의 음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연변 훈춘 지역어에서, 화자들 사이 및 동일 화자 내에서도 다양한 변이형 tyV형, t^yV형, t^yV~tV형, tV형, čV형, cV형.을 보인다고 한다(소 신애 2003 : 186).

서 의문이 제기되는 점은 치경음 /t(t^h)/이 전형적인 설정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음적 구개음화의 예외를 이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음적 과정은 예외를 이루지 않고, 항상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i, j/ 앞에서 /t(t^h)/ 및 /ʧ($ʧ^h$)/를 제외하고, 이음적으로 구개음화하는 설정음 /s, n, l/만이 자연 부류를 이룰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음적 구개음화가 /s, n, l/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든 이음적 현상의 일반성과 자동성 그리고 음성 지향적인 특징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에 의해, 치경음 /t/ 및 후치경음 /ʧ/는 다른 설정음과 마찬가지로 이음적인 구개음화를 일으키고, 또한 이음적 구개음화에 대해서 자연 부류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키팔스키(Kiparsky 1993)는 치경음 /t/가 전설 고모음류 앞에서 후치경음 [ʧ]로 바뀌는 것은 파찰음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파찰음화는 구개음화와 동일한 환경을 갖지만 독자적으로 발생하며, 음소적으로 파찰음화된 /ʧ/는 전설 고모음류 앞에서 2차적으로 구개음화되어 [ʨ] 또는 [$ʧ^j$]로 음성 실현된다. 다시 말해서 국어의 /t/는 음소적 파찰음화와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여 2차적으로 구개음화된 후치경 파찰음 [ʨ] 또는 [$ʧ^j$]가 된다고 보았다. 이음적 구개음화는 모든 설정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s, n, l/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던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키팔스키(Kiparsky 1993)는 모든 이음적 현상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현순(Kim 1997)의 음성학적 연구에서도, 비도출된 /ʧ/는 물론 도출된 /ʧ/도 다른 설정음과 같은 위치 자질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오직 나타나는 차이는 이들이 파찰음이어서 [+소음성]([+strident])에 의해 /t/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만일 김 현순(Kim 1997)과 키팔스키(Kiparsky 1993)의 견해가 옳다면, 'ㄷ'과 'ㅈ'을 포함한 모든 설정음들은 이미 중세국어 당시에도 형태소 경계에 관계 없이 전설 고모음류 앞에서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2)

ㄷ>ㅈ 파찰음화는 'ㅈ'이 두 이음 [ʦ]와 [ʧ]로 존재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현재의 육진 방언이 바로 그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음 변화는 음소적으로 볼 때 'ㅈ'이 /ʦ/인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 된다. 육진 방언에서, '종이'[紙]는 [ʧoi]~[ʧoɛ], '조'[粟]는 [ʦoi]로 발음되며, '초'(醋)는 [ʦʰo], '초'[燭]는 [ʧʰo]로 발음된다. 이때 [ʧoi]와 [ʦoi], [ʧʰo]와 [ʦʰo]는 각각 최소대립쌍을 형성하므로 [ʦ], [ʦʰ], [ʧ], [ʧʰ]의 각각을 하나의 음소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자음 음소들과는 달리 /ʦ/와 /ʧ/에는 활음 /j/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약을 두어야 하므로 체계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ʦ]는 /i/를 제외한 모음 앞에서 출현하고 [ʧ]는 /i/를 포함한 모든 모음 앞에서 출현하므로 그 분포에 있어 배타적인 경우가 생기고, [ʧəʤi](졎[乳]-이), [ʧədzɨl](졎-을), [ʧədze](졎-에)가 보여 주듯 형태소

2) 음소적인 t-구개음화는 도출 환경에서만 발생하고, 이음적인 구개음화는 /t, tʰ, t'/와 /c, cʰ, c'/를 제외한 설정음에서만 발생한다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반대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음적인 구개음화가 /t, tʰ, t'/와 /c, cʰ, c'/를 제외한 설정음에서만 발생한다는 가설은 이음적 특성 즉, 자동적이고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t, tʰ, t'/와 /c, cʰ, c'/를 제외한 설정음들은 자연 부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 나은 가설은 모든 설정성 자음들은 예외 없이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계에서는 이음 규칙에 의하여 어간말 자음 ‘ㅈ’이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dz]와 [ʤ]로 실현되며, 또 화자들은 심리적으로 [ʦ]와 [ʧ]를 별개의 음소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각각 하나의 독립 음소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곽충구 2001). 현대의 육진 방언은 바로 이 같은 자음 음성 체계하에서 ㄷ>ㅈ 구개음화가 발생하여 그 변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곽 충구(2001)에서는 이음 규칙 ts→ʧ/ __{i, j}이 발생한 후 ㄷ>ㅈ의 음 변화가 출현하였고 이어 이음들의 합류가 이루어졌는데, [ʦ]와 [ʧ]의 합류는 매우 긴 시간축상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글의 기본 입장은 구개음화 환경에서 ㄷ과 ㅈ 모두 이음적 구개음화를 동시에 경험한 [t^j], [ts^j]([ʧ]) 상태에서, 다시 [t^j]가 구개음화의 인지적 단서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ʧ]로 파찰음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ㅈ(/ts/)의 경구개 변이음 [ʧ]의 발생과 [t^j]이 파찰음화한 [ʧ]의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필요성이 인식될 때 언제든지 [t^j]는 [ʧ]로 파찰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t]>[t^j]>[ʧ]). 경구개 위치에서 좁힘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혓몸의 앞 부분이 경구개 천정 쪽으로 구부러져야 하는데, 이때의 굴곡면은 자연적으로 혀끝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이러한 위치에서 혓날을 약간 들어 올려 위 잇몸 뒤쪽에서 좁힘점을 이루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Flemming 2003 : 366). 그리하여 경구개 치경 파열음 [t^j]는 쉽게 경구개 파찰음이 될 수 있다.

기원이 서로 다른 두 파찰음의 변이적 발생 이외에도, 이 당시 자음 체계상에 경구개 조음 위치가 빈칸으로 남아 있고, 또

경구개 조음 위치는 파찰음의 무표적인 조음 위치가 되므로, /ts/는 /ʧ/로 용이하게 조음 위치를 바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한된 환경에서 실현되던 변이음 [ʧ]이 i, j 이외의 모음 환경으로까지 어휘적으로 분포 영역이 확산됨으로써 음가가 완전히 재구조화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이음으로 존재하던 [ʧ]이 음운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어, 변이음의 관계에서 음운 대립 관계로 나타나는 음운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일어나는 음소적 ㄷ>ㅈ의 음 변화(전통적인 ㄷ 구개음화)가 출현하게 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2. 중세국어 'ㅈ'의 음가와 경구개 변이음

지금까지 중세국어 'ㅈ'의 음가를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관점이나 해석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가) 치음(박 창원 1994), (나) 치경음([ts])(허 웅 1964, 이 기문 1964, 1972, 오 정란 1999), (다) 경구개음([ʧ])(최 세화 1979, 김 무식 1993), (라) 치경음과 그 변이음으로서 경구개음([ʧ])(강 신항 1983, 김 주필 1985) 등의 제설이 제시된 바 있다.[3)] 이 글에서는 견해 (다)를 수용한다.

---

3) (라)의 경구개음([ʧ]) 설은 중세국어에서 볼 수 있는 'ㅈ'과 관련된 음운 현상(가령, 유음 탈락, 음절 말 위치에서의 중화, '-슣-'의 이형태 교체 등)을 보거나 또는 잔재 지역(relic area)이라 할 수 있는 현대의 육진, 평안 방언에서 'ㅈ'이 [ts]로 조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가)와 (나)는 음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조음 위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음운론적으로 'ㅈ'은 '치음' 및 '설음'과 자연 부류를 이루기도 하였다. (나)는 'ㅈ'이 중세국어 단계에서 어느 환경에서나 치경음으로 실현되었다는 견해이고, (다)는 'ㅈ'이 단모음 앞에서는 치경음으로 실현되고, 'ㅣ'나 상향 이중모음 앞에서는 경구개음으로 실현되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나)와 (다)는 이음 규칙 ts→ʧ/ __{i, j}가 중세국어 단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

허 웅(1964)에서는 중세국어 단계에서의 몇 가지 음운 현상을 들어 ‘ㅈ’이 치경음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치음 ‘ㅅ, ㅿ, ㅈ, ㅊ’과 설음 ‘ㄴ, ㄷ, ㅌ’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4) 예: 사쟈(살+쟈), 사디 몯ᄒᆞ니(살+디), 사더니(살+더니), 사ᄂᆞ니(살+ᄂᆞ니), 사ᄉᆞᆸ더니(살+ᄉᆞᆸ-). 이는 설음과 치음 및 ‘ㄹ’이 중세국어에서 [+설정성] 자질에 의해 자연 부류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음성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만약 상향 이중모음 앞의 ‘ㅈ’이 경구개음이라면, ‘사쟈’의 ‘-쟈’는 음성적으로 [ʧa]였을 것이므로 ‘ㄹ’은 경구개 자음 [ʧ] 앞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음운론적으로 ‘ㅈ’은 언제나 /ʦ/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세국어 단계에서 ‘ㅈ’이 [ʦ]로만 실현되었는가, 아니면 [ʦ]와 [ʧ]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음운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다만, 구개음화가 어떠한 층위에서 발생하였고 자음 체계의 변화는 이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할 때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5)

중세국어에서 ‘몬져’에 대한 ‘몬저’처럼 형태소 내부에서는 ‘져’와 ‘저’의 혼란이 나타나지만, ‘지(負)+어→져, 가지(持)+어→가져’에 의한 ‘져’가 ‘저’로 나타난다거나, ‘늦(緩)+어→느저, 닞(忘)+어

지 하는 이음 규칙의 발생 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그리고 (나)는 위 이음 규칙이 t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 이전에 생겼다는 견해와 이후에 생겼다는 견해가 있다.

4) 이 현상은 치음과 설음 앞에서 설음인 ‘ㄹ’이 탈락하는 것인데 동기관적 이화(이 병근 1981)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5) 국어사에서 ㅈ 구개음화를 논할 때, 그 /ㅈ/이 변이음 [ts]와 [ʧ], [ʨ]를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단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중세국어 시기에 이러한 변이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강 신항 1983, 김 주필 1985)과 그 이후 근대국어 시기에 이러한 변이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기문 1972)이 있어 그 견해에 차이를 보인다.

→니저'에 의한 '저'가 '져'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처럼 활용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져'와 '저'가 혼란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의 'ㅈ'가 음운론적으로 /ts/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송민 1986 : 70).

한편 중세국어의 치음은 당시 중국음의 치두음과 정치음과의 사이에서 조음되는 음이었으므로, ts 계열로 볼 수도 있고, ʧ(또는 ʨ) 계열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치음은 /i/ 모음(/j/ 포함) 이외의 모음들과 결합될 때에는 ts, ts^h, s로 실현되고, /i/ 모음과 결합될 때에는 ʧ, $ʧ^h$, ʃ 또는 ʨ, $ʨ^h$, ɕ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강 신항 1983 : 29).[6] 그런데 15, 16세기의 정음 문헌을 보면 양자 사이에 구별이 없이 혼용된 예들이 나타난다.

(2) 몬저(牧牛子修心訣 10a) 몬제(능엄경 언해 1 : 98a)
몬졔시니(용비어천가 7)
잘익(자루, 능엄경 언해 8 : 88b) 쟈ᄅ 딕(袋)(훈몽자회 中 13b)
저ᄒ니(용비어천가 59) 져커니(원각경 언해 上二之三 40a)
조개(능엄경 언해 8 : 55b) 죠개 합(蛤)(훈몽자회 上 20a)
처섬(용비어천가 78) 쳐섬(원각경 언해 下二之一 17a)
시절(번역소학 6 : 10a) 시졀(번역소학 6 : 17a)

후기의 문헌에서도 이런 혼용례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후기의 문헌에서는 초기 문헌에서 '자 저 조 주' 등으로 표기되던 것이 '쟈 져 죠 쥬'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쟈 져 죠 쥬' 등으로 표기되던 것이 '자 저 조 주' 등으로 표기된 것도 있다.

6) 허 웅(1964)에서는 중세국어의 치음은 그 음가가 ts, ts^h, s이어서 /i/ 모음과 결합되는 치음과 대립을 이루어 변별적으로 기능했으리라 보고,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표기상의 대립을 예로 들어 왔다. ·소(潭) : 쇼(牛), ·섬(階) : ·셤(十斗), 저(自) : 져(筯), 초(醋) : 쵸(燭) 등.

(3) 져근 뎐(杜초 十六 17) > 저근 챵(譯上 35)
져재(市場 용 16) > 저재(譯上 68)
죠히(解例 用字) > 조희(柳物 四木)

15, 16세기 무렵에 이미 혼용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혼용은 조음 위치의 이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강 신항 1983). 오히려 이들을 초기부터 혼용할 정도로, 중세국어에서는 ‘자’ 계열과 ‘쟈’ 계열의 변별적 기능이 별로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 민섭(1995)에서는 몽고어 차용어의 국어 표기와 몽고문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면서, 중세국어의 ㅈ, ㅊ은 구개음화의 환경에 처해 경우에 따라서는 변이음적 구개음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조선관역어의 한어 대역에서 i, j에 선행하는 치음은 정치음자로 대역하고, i, j 이외의 모음에 선행하는 치음은 치두음자와 정치음자를 모두 사용했음을 지적하였다. 대역 표기에서 i, j 이외의 모음 앞 치음을 주로 치두음자로 음역한 것은 15세기 국어의 ㅈ, ㅊ 등이 확립된 구개음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i, j에 선행하는 치음을 정치음자로 음역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즉 15세기 국어의 ㅈ, ㅊ은 분류상 치경음이었지만, 조음 위치가 치경 부위에 고정된 불변의 치경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음 위치가 약간 구개 쪽으로 이동될 수 있는 불완전한 치경음이었기 때문에, 구개음화 환경에서는 음성적 변이음으로 [ʧ], [$ʧ^h$] 등을 실현할 수도 있는 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15세기 당시 국어에서 구개음화 환경에 있는 ㅈ, ㅊ 등은 경구개적 변이음으로 실현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방언에서 나타나는 ‘ㅈ’의 음가는 치경음 [ʦ]와 경구개

치경음 [ʧ]로 실현된다. 그런데 주변이음으로서 [ʦ], 부변이음으로서 [ʧ]를 가지고 있는 육진 방언은 우선 ㄷ-구개음화가 없는데다가 다른 방언에 비해 음운 규칙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음절 구조가 중세국어의 그것과 비슷하고 고어가 많아 잔재 지역의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곽 충구 1994). 따라서 현대의 가장 보수적인 방언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ㅈ'의 선대 음은 '자'계는 [ʦV], '쟈'계는 [ʧV]가 된다.

한편, 평안 방언은 자음 뒤에 상향 이중모음이 연결되지 않는 제약을 가진다. 이는 이 방언에서 설정성 자질([+coronal])을 가진 자음 뒤에서는 상향 이중모음의 활음 /j/가 탈락하였고, 비설정성 자질을 가진 자음 뒤에서는 상향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ʧ]의 부재는 'ʦ>ʧ'의 견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j'가 'ʦ>ʧ'에 앞서 먼저 탈락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7] /i, j/ 앞에서 치경음 'ㅈ'이 구개음으로 실현되었다면, '지'만큼은 [ʧi]로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지도 않다. 중부 방언에서 '샤[ʃV]'계가 '사[sV]'계로 변화했지만 '시'만큼은 [ʃi]로 실현되는 점과 비교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ㅈ'의

7) 이러한 규칙순에 의한 설명 이외에도 이 방언의 'ㅅ, ㅈ' 등을 치경음이 아닌 치음으로 보는 방법도 가능하다. 치음과 치경음은 구개음화와의 양립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치음은 치경음보다 구개음화와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다. 실제로 치경음은 치음보다 전설화된 혓몸으로 조음되는데, 이는 치경음과 치음이 대립을 이루는 언어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치음의 F2값이 더 낮게 나타남을 보아 알 수 있다(Dart & Nihilani 1999). Stevens et al.(1986)에 따르면, 치음은 혓몸이 약간 덜 전설화할 때 가장 용이하게 조음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치음의 좁힘점은 혀의 앞 부분이 평평해질 때 더욱 쉽게 이루어지며, 반면에 완벽한 최대의 전설화는 혀의 앞 부분을 아래로 구부러지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개음화된 치음과 치경음을 기피하는 제약의 등급순은 다음과 같다. *PALATALIZEDDENTAL≫*PALATALIZED ALVEOLAR.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곽 충구 2001 : 245).

(4)		*ʦV	*ʦjV	
	평안 방언	ʦV	ʦV	치경음 아래에서 j탈락
	육진 방언	ʦV	ʧV	ts→ʧ/ __{i, j}

3. 경구개 변이음([tʲ])의 파찰음([ʧ])화와 인지적 단서

중세국어의 하향 이중모음 'ㅢ'는 17세기 전기부터 자음 아래의 환경에서 'ㅣ'로 변화되기 시작하다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산발적인 동요를 나타내는데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김 경훤 2003).

(5) 여히놋다(<여희-, 杜諺 중 17 : 19), 사ᄅᆞᆷ이게(<-의게, 經書 대학 2), 디키여(<디킈여, 家禮 2 : 1), 희고히여서(痘經 상 : 53), 박핑이(<박픵이, 朴重 상 : 16), 빌미(<빌믜, 漢 255d), 슬미다(<슬믜다, 漢 238a).

그 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ㅢ'는 방언에 따라 'ㅣ, ㅡ, ㅔ'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단모음화를 보이는데, 'ㅣ'로 변한 전라 방언의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최 전승 1986).

(6) 히식(喜色, 조웅 3 : 20b), 기갈(飢渴, 조웅 1 : 4a), 눈치(심청 上 23a), 굽이굽이(丙午 春 8b), 이상(衣裳 成烈 204).

통시적으로 하향 이중모음 /ㅢ/는 단모음화되어 /ㅣ/로 변하거나, 또는 핵 이동을 통하여 상향 이중모음 /ㅢ/로 변한다고 보기도 한다(신 지영 1999). 이런 견해에 의하면, /ㅢ/는 먼저 단모음화를 통하여 /ㅣ/로 변화하고, 또 /ㅡ/가 [+고설성]을 가졌

으므로 핵 이동이 가능해 핵이 /ㅡ/에서 /ㅣ/로 이동하면서, /ㅡ/가 음절핵에서 반모음으로 변하고, /ㅣ/는 활음에서 음절핵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상향 이중모음 /ɰi/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리하여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이 없이 첫 음절에 위치한 경우((7)ㄱ)을 제외하고는, 첫 음절에 위치하든((7)ㄴ) 둘째 음절 이하에 위치하든 모두 /ㅣ/로 단모음화한다.

(7) ㄱ. 의지ᄒᆞ다 > 의지하다, 의탁ᄒᆞ다 > 의탁하다, 의지 > 의지.
ㄴ. 틔 > 티, 긔다 > 기다, 긔약ᄒᆞ다 > 기약ᄒᆞ다, 싀골 > 시골, 믯구리 > 미꾸라지, 믭다 > 밉다, 믯그럽다 > 미끄럽다.
ㄷ. 디듸다 > 디디다, 견듸다 > 견디다, 드듸여 > 디디여, 어듸 > 어디, 헌듸 > 헌디, 거믜 > 거미, 믯믯ᄒᆞ다 > 밋밋하다, 싁싁ᄒᆞ다 > 씩씩하다.

중세국어 ‘디듸다’, ‘견듸다’ 등의 /듸/가 단모음화하여 /디/가 되면, 본래 존재하는 /디/와 충돌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했던 본래의 /디/([ti]~[tʲi])는 이 새로운 /디/와 음성적 대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ʧi]로 파찰음화하게 된다. 인지적 단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tʲ]의 구개성을 증대시킨 결과 파찰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대립 산포 이론에 따라 더욱 더 구개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파찰음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하여 단모음화를 경험하여 새로이 발생한 /디/와 본래의 /디/는 이제 /디/([tʲ]) : /지/([ʧi])가 되어 음성적 대립을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세국어의 /디/가 /지/로 변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듸/의 /디/로의 변화 즉,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모음화가 이루어진 18세기 말 이후 또는 19세기 초(이 기문 1972)를 지나면서 국어의 음소적 구개음화인 ㄷ>ㅈ의 구개음화가 생산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t^j]의 파찰음화,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난 본디 [ʧ]의 /ʧ/의 재구조화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개음화한 치경음은 구개음화의 인지적 단서 즉, 구개음화의 청각적 단서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t^j]를 파찰음화시킨 방증으로서 /i/보다 /j/ 앞에서 ㄷ>ㅈ의 변화가 먼저 발생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동의보감』(1613)의 ‘죠ᄒᆞᆫ 누른 딜ᄒᆞᆰ’(好黃土)을 보면, ‘죠ᄒᆞᆫ’이 ㄷ>ㅈ의 변화를 겪었음에 반하여 ‘딜ᄒᆞᆰ’은 이 변화를 겪지 않는다. 그런데 ‘죻-’ 어형은 16세기 말엽의 『소학언해』(1587, 도산서원본)에서도 확인된다.[8] 이처럼 16세기 말엽과 17세기 초엽의 중앙 방언 자료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둏->죻-’와 같은 변화는 ㄷ>ㅈ의 변화가 /i/보다 /j/ 앞에서 먼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송 민 1986 : 65). ‘딜ᄒᆞᆰ’의 ‘딜’도 /i/ 앞에서 이음적으로 구개음화되어 [t^j]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개음화의 동화력이 일반적으로 /i/보다 /j/가 더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조음적으로 전설모음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개성이 강해져서 그 앞의 모음을 쉽게 구개음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됴ᄒᆞᆫ’의 ‘됴’는 [t^j]보다 더 구개성의 인지적 단서를 많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t^j]보다 구개성의 인지적 단서가 많은 [ʧ]로 파찰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이음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발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강한 수의성을 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구개음화의 예로 소개되었던 ‘진짓’(두초 8 : 56a, 유 창돈 1964 : 94)과 ‘모지마라’(석상 9 : 12a, 박 병채 1989 : 148), ‘치자ᄇᆞ시니’(용가 58, 이 동석 2002 :

8) 진실로 밧끠 건 됴흘 적이면 도로혀 제 몸과 다ᄆᆞᆺ ᄆᆞᄋᆞᆷ이 이믜 스스로 몬져 죠티 몯ᄒᆞᄂᆞᆫ 줄을 아디 몯ᄒᆞᄂᆞ니라(苟得外物好時 却不知道自家身與心 己自先不好了也)<소학언해 5 : 87b>(송 민 1986 : 65 참조).

145), '드러치더라'(석상 3 : 43a), '구쳐'(석상 6 : 3a) 등은 인지적 단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t^j]의 구개성을 증대시킨 결과 파찰음으로 변한 예들로 볼 수 있는데, 이 ㄷ>ㅈ 파찰음화는 이 당시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사용 빈도수가 높은 소수의 어사들로 어휘적 확산(lexical diffusion)을 보이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사는 사용 빈도수가 낮은 어사보다 쉽게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왜 18세기에 이르러 ㄷ>ㅈ의 파찰음화가 비어두 및 어두 음절을 막론하고 생산적으로 발생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 중앙 방언 자료에서, /ㅢ/의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에는 ㄷ>ㅈ의 파찰음화가 우발적이고 산발적으로 실현되었으나, 18세기 30년대에 이르러 단모음화가 부분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한 이후에는 이 파찰음화도 생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9] 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개성의 인지적 단서를 많게 하여 청자로 하여금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음의 대립성을 명확하게 유지하려는 작용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음운 과정에서의 인지적인 면은 언어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미 시작된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Ohala 1981). 오늘날 ㄴ-, ㅅ-, ㄹ-의 이음적 구개음화와 달리, ㄷ-구개음화를 음소

9) 『女四書諺解』(1736)는 모든 종류의 ㄷ>ㅈ 변화를 보여 주고 있어서, 이 변화가 당시의 문법에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말해 준다. 중앙어에서 ㅈ의 구개화음이 모든 환경으로 확산되어 자음 체계상의 변화를 보인 시기에 대하여 허 웅(1964)에서는 18세기 말로, 이 기문(1972)에서는 16, 17세기의 교체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문헌 자료의 해석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치음 아래에서 단모음이 j계 이중모음으로, j계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동요되는 현상을 ㅈ의 구개화에 대한 초기적 단계인지, 아니면 말기적 단계로 보느냐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적이라 일컫는 현상의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통시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음의 대립은 충분히 변별되어야 하는데, '음소적'(또는 대립적)과 '이음적'이란 용어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둘의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공동의 보유성(unity)을 놓치기 쉽다. 다시 말해서, 이음적(allophonic)인 과정도 최소한 대립 보존(contrast preser vation)의 목적을 때때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패지트(Padgett 2001 : 197)는 i 앞에서 구개음화가 잘 식별되지 않는 러시아어의 현상을 분석했는데, 이 현상은 비순음의 조음위치를 고려할 때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면, '*xodi*'의 설정성 파열음([d])은 전형적으로 파찰음화하는데, 비록 이 파찰음화의 정도가 화자 및 방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이 파찰음화는 대립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더 구개음화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은 Ci 대 $C^{j}i$와 같은 대립은 불완전하다는 주장을 지지해 준다. 왜냐하면, 그러한 짝의 대립 산포(contrast dispersion)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파찰음화(연구개음화 이외에)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패지트(Padgett 2001 : 208)에서 치음(dentals)의 대립은 양순음과 비교할 때 더욱 더 변이성을 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어(Irish)의 북부 방언은 아래 (8)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개음화된 치음들(palatalized dentals)은 파찰음화([dz])한다(아일랜드 북부 지역의 젊은 층 화자들이 사용하는 말씨의 특징).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어(Irish)의 서부 방언은 파찰음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이때 북부 방언의 i 앞에서 비구개음화된 치음은 서부 방언에 비해 거의 연구개음화(velarized)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때

때로 연구개음화([dˠ])를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8) 북부 아일랜드어: dzi d(ˠ)i / bi bˠi
서부 아일랜드어: di dˠi / bi bˠi

표준 러시아어와 서부 아일랜드어(Irish) 방언에서도 구개음화한 치음들은 약간 파찰음화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구개음화의 청각적 단서를 더욱 증가시킨다. 그러나 양순음은 파찰음화하지 않는다. 구개음화에서 두 종류의 청각적 단서가 교체되어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구개음화된 치음과 비구개음화된 치음의 F2 값의 차이가 적을지라도 양순음과 비교할 때, 이 값은 그들의 인지적인 대립을 이루는 데 충분함을 알 수 있다.[10] 양순음의 경우에서는 구개음화 대신 연구개음화([bˠ])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구개음화한 [d]와 연구개음화한 [d]의 F2′ (F2 prime) 값이 중복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d]의 경우, 구개음화의 대립을 F2′ 값만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운론적인 기술에서 이음적인 기술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음 규칙들을 실제로 이해하는 데에는 음성적인 내용이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음의 대립(contrast)은 인지적인 산포(perceptual dispersion)와 같은 기능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화 규칙이 음성학에 기반

10) 순음은 구개음화의 대립 능력에 있어서 설정음보다 제약된다. 다시 말해서 구개음화의 대립이 설정음보다 순음에서 더 선호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순음의 구개음화를 반대하는 제약은 설정음의 구개음화를 반대하는 제약보다 등급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구개음화된 순음이 분포 위치에 관계 없이 기피되는 사실은 구개음화된 순음의 청각적 단서의 수가 구개음화된 설정음의 그것보다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거의 무시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영어의 무성 자음들이 단어 초 및 강세된 음절에서 유기음화한다는 규칙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를 보면, 그 현상 자체를 기술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음절이 음운론의 중요한 단위가 된다는 식의 추론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규칙이 대립 전이(contrast shift)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Kingston & Diehl 1994). 즉, [b : p]와 같은 대립은 단어 초 또는 발화 초에서 회피되는데, 그 이유는 이 위치에서 유성 장애음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위치의 유성음 [b]는 때때로 [p]로 실현된다. 이와 동시에 무성 장애음은 무성 유기음 [p^h]로 바꾸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어 초의 유기음화가 그 위치에서 인지적으로 명확한 대립을 유지하기 위한 결과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소와 이음들의 분포에 관한 진술에 머무르지 않고, 위와 같은 질문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음적 과정' 및 '음소적 과정'과 같은 전통적인 용어상의 이분법은 비록 음운론에서 중요한 목적으로 이용될지라도, 인지적인 대립을 설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Padgett 2001). 이러한 견해에 따라, '국어의 구개음화 환경인 /i(j)/ 앞에서 음소 /t/이 음성 [t^j]를 거쳐 [ʧ]으로 변한다'와 같은 이음적 기술은 '음소적인 차원의 대립(phonemic contrast)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라고 할 것이다.

국어의 마찰음과 파찰음의 인지적(지각적) 변별의 주요 단서는 마찰 소음 구간의 길이라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박순복 외 1998). 에너지 상승 시간보다도 마찰 구간의 길이

가 더 중요한 음향적 단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상승 시간이 짧은가 긴가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 반면, 마찰 소음 길이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길이가 긴 것은 마찰음으로, 그 길이가 짧은 것은 파찰음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한 단서인 마찰 소음 구간의 길이에 소음 에너지의 상승 시간과 파열부 신호 등의 요인이 인지적 효과를 더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찰음은 에너지 상승 구간에서 더 급격한 변화를 입고, 파열부 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 그 인지가 더 오래 유지되지만 이는 부수적인 단서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개화음 [t^j]의 인지적 단서를 많게 하기 위해서 마찰 소음 구간의 길이를 약간 길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파찰음 [ʧ]라고 볼 수 있다.[11] 음향적 단서를 이용한 인지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러한 파찰음화는 인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지를 명확하게 해 줄 음향적 단서로서 마찰 소음 구간의 길이가 이용된 것이다. 이로 보아 ㄷ>ㅈ의 구개음화 현상이 인지에 의해 모두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음운 현상과 인지는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구개음화한 'ㄷ'([t^j])이 파찰음([ʧ])화함에 따라 'ㅈ'(/ts/)의 구개 변이음 [ʧ]은 인지적 산포 영역을 크게 하기 위하여 연쇄적으로 [ʨ]로 이동한 결과, 'ㅈ'(/ts/)이 'ㅈ'(/ʧ/)으로 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자음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경구개 위치가 비어 있었고 또한 경구개 위치에서는 파찰음이 파열음보다 더 자연스러운 특성(Ladefoged 1971 : 41) 때문에, 치경음

11) 이 기문(1972)에서는 [tsV]와 [ʧjV]의 변이음 단계에서 후자의 [j]가 탈락하여 [tsV]와 [ʧV]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해 [ts]가 [ʧ]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ㅈ'은 후치경음 또는 경구개 치경음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음 변화는 단일한 요인에 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통시적 변화의 결과 ㄷ>ㅈ의 음소적 음 변화 즉, 전통적으로 불러 온 음소적 ㄷ-구개음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 결론

전통적으로 음소적 ㄷ-구개음화라 불러 온 현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이의 발생은 중세국어 당시 구개음화 환경에서 /t/이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여 발생한 변이음 즉, 경구개 치경 파열음 [t^j]이 발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j) 앞에서 'ㄷ, ㅈ'을 비롯한 모든 설정성 자음들이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는데, 이는 현재 구개음화가 진행 중인 방언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경구개 변이음 [t^j]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ㄷ, ㅈ'을 제외한 설정음만이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한다고 보는 종전 견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 후 18세기에는 ㄷ>ㅈ의 음소적 구개음화가 비어두 및 어두 음절을 막론하고 생산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이 시기에 발생한 이중모음 'ㅢ'의 단모음화와 자음 체계의 변화 때문으로 보았다. 17, 18세기에 이르러 자음 뒤의 이중모음 'ㅢ'는 단모음화를 경험하여 'ㅣ'가 됨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듸'가 '디'로 변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구개 변이음 [t^j]을 실현했던 본래의 '디'는 새로이 발생한 '디'와 중복되어 음성상의 충돌을 자아내게 된다. 이를 해소하고 음의 대립적 변별

성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경구개 치경 파열음 [tʲ]는 경구개 치경 파찰음 [ʧ]로 변하게 된다. 파열 후 소음 구간의 길이를 약간 길게 하여 파찰음화한 것이다. 이때의 소음 구간의 길이는 주요한 음향학적 단서가 되어 이 음의 인지도를 높게 해 준다. 다시 말하면, 경구개 변이음 [tʲ]의 인지적 단서를 크게 하기 위하여 파찰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파찰음화는 다시 산포 원리에 따라 본래 존재하던 'ㅈ'(/ts/)의 변이 음역을 [ʧ]에서 [ʨ]로 확장시켜 결국에는 /ʧ/로 재구조화한다. 이러한 해석은 [ʧja]의 [j]가 탈락하면서, [tsa]와 [ʧa]의 구별이 모호하게 된 데에서 /ʧ/의 발생 원인을 찾는 이전의 설명 방법과 다르다. 음운 현상과 인지는 상호 작용한다고 보는 인지적 방법을 기반으로 하면, 왜 17, 18세기에 이르러 ㄷ>ㅈ 구개음화가 생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발생한 이중모음 'ㅢ'의 단모음화 과정과 자음 체계의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대량 나타난 현상이 음소적 ㄷ-구개음화임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강 신항. 1983.「치음과 한글 표기」, 국어학 12. 13~34쪽.

곽 충구. 1994.『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론』. 서울: 태학사.

곽 충구. 2001.「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37~268쪽.

김 경훤. 2003.「이중모음 'ㅢ'의 통시적 변화」, 어문연구 119. 51~69쪽.

김 동언. 1990.「'ㄷ' 구개음화에 대하여」, 한국어학신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12쪽.

김 상돈. 1990.「ㅈ 구개화음에 대하여」, 한국어학신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27~39쪽.

김 주필. 1998.「구개음화의 통시적 전개 과정과 특성」, 음운Ⅱ(국어학 강좌 5). 서울: 태학사. 365~400쪽.

박 병채. 1989.『국어 발달사』. 세영사.

박 순복 · 이 봉원 · 신 지영 · 김 기호. 1998.「한국어 마찰음과 파찰음의 변별 지각 단서」, 음성과학 4.1호. 한국음성과학회. 47~58쪽.

소 신애. 2003.「음 변화의 진행 과정: 연변 훈춘 지역 조선어의 구개음화를 중심으로」, 언어 28-3. 405~425쪽.

송 민. 1986.『전기 근대국어의 음운론 연구』. 서울: 탑출판사.

신 지영. 1999.「이중모음 /ㅢ/의 통시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3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73~497쪽.

오 정란. 1999.「중세국어 설음과 치음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국어학 33. 69~97쪽.

우 민섭. 1995.「구개음화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8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73~297쪽.

유 창돈. 1961.『국어 변천사』. 서울: 통문관.

이 기문. 1972.『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 탑출판사.

이 동석. 2002.「15세기의 ㄷ 구개음화 현상 고찰」,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143~160쪽.

이 명규. 2000.『중세 및 근대국어의 구개음화』. 서울: 한국문화사.

이 병근. 1981.「유음 탈락의 형태론과 음운론」, 한글 173·174. 223~246쪽.

정 인호. 2003.「평북 방언에서의 'ㅈ, ㅅ'의 음 변화」, 한국문화 3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3~47쪽.

허 웅. 1964.「치음 고」,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45~54쪽.

홍 윤표. 1985.「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143~157쪽.

Dart, Sarah N. & Paroo Nihilani. 1999. The articulation of Malayalam coronal stops and nasal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29. 129-142.

Flemming, Edward.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oronal place

and vowel backness. *Phonology* 20. 335-373.
Hong Soon-hyun. 2000. Palatalization and affrication,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6-1호. 159~179쪽.
Kim H. S. 199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affricates: Evidence from Korean and other languages.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Kingston, J. & Diehl, R. L. 1994. Phonetic knowledge. Language 70-3. 419-454.
Kiparsky, P. 1993. Blocking in non-derived environments. In S. Hargus and E. Kaisse(eds.), *Studies in Lexical Phonology*. 277-313.
Ladefoged, P. 1971. *A course in Phonetics*.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Ohala, J. J. 1981. The listener as a source of sound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parasession on language and language behavior. Chicago.
Padgett, Jaye. 2001. Contrast dispersion and Russian palatalization, in the *The role of speech perception in phonology*. 187-218.
Stevens, Kenneth N., Samuel Jay Ketser & Haruko Kawasaki. 1986. Toward a phonetic and phonological theory of redundant features. In Joseph S. Perkell & Dennis H. Klatt(eds.) *Invariance and variability in speech processes*. Hillsdale, NJ: Erlbaum. 426-449.

박 종희
570-749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누리편지: jhpark@wonkwang.ac.kr

<abstract>

The Palatal Allophones of Alveolars and Changing into Affricate in Korean

Park Jong-hee

This paper aimed to explain the emergence of the phonemic palatalization in Korean. This process was diachronically developed from the allophonic palatalization of alveolar stop /t/ in Middle Korean. The palatal allophone [t^j] in front of [i](or [j]) was changed into affricate as [ʧ](or [ts^j], [tɕ]) to increase the acoustic cues. And then this palato-alveolar [ʧ](or [tsj], [tɕ]) became to loss the contrast with the [ts^j]([ʧ]) which was the original allophones of alveolar affricate /ts/(ㅈ). In this case to preserve the contrast between these two allophones, the consonant system was changed. Another words, the original alveolar shifted its place of articulation to the palato-alveolar position. By this development, A new phoneme /ʧ/ appeared. This explanation was based on the assumption which the sound contrast could be established on the allophonic level as well as the phonemic level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in some cases.

Traditionally t-palatalization was accepted as a phonemic or neutralized palatalization on the contrary n, s, l-palatalization which were accepted as a allophonic palatalization. And so t-palatalization was wrongly treated as the exception of a allophonic changes. However I suggested that the t-palatalization

in Korean appeared diachronically by way of two stages. First step was the natural emergence of allophonic [t^j] and the next step was changing into affricate [t^j] in order to increase the perceptual cues.

* **Key words**: Palatal allophones, Affricate, Phonemic palatalization, Perceptual cues.

〈논문 받은 날: 2005. 12. 10.〉
〈수정본 받은 날: 2006. 4. 20.〉
〈싣기로 한 날: 2006. 4. 28.〉